

60호, 2006,3-4

책을 열며 / 허위의식을 깨우는 평통사로! / 김창환

특집 / 한미연합연습의문제점 한미연합 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문제점을 밝  
힌다 / 오혜란

특집 / 한미연합연습의문제점 사라진 상륙전의 진실\_보수언론, '북침연습' 외면하고 '몰이식'  
보도만 / 정명진

특집 / 한미연합연습의문제점 동북아 최대의 물류산업단지와 동북아 최대의 미군병참기지라  
는 기로에 선 광양을 가다 / 김종일, 박종양

특집 / 한미연합연습의문제점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방문 보고서 / 박종양

인물 / 평통사 식구 3년차, 아가타 선생님 / 황윤미

포토뉴스 / 대추리 도두리의 봄은 잔인했다 / 홍보국

기획 / [국방개혁 2020] 무엇이 문제인가? / 김판태

돋보기 /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 유영재

평화카페 / 작가의 또다른 시도-"길라네"를 보고 / 김균열

봄은 누구에게나 봄이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부자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올해도 농사짓는 것이다

허리 숙여 불별이랑을 기며  
태풍 장마에 애간장을 줄이며  
누구도 대신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구도 대신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올봄에도 내 땅에 씨뿌리는 것이다

누가 내 가난한 소망을 가로막는가  
누가 내 소박한 봄날을 깨뜨리는가  
누가 사람을 먹여 살려온 이 들녘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기지를 세우려 하는가

너희가 무력으로 내 땅을 강점하고  
너희가 총칼로 내 봄을 짓밟는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도 없다  
이제 우리는 정의도 없다

미군의 민주주의  
미군의 안보  
미군의 권리에  
내 땅에서 울부짖고 쓰러지고 쫓겨나는 나라라면  
나라도 없는 우리는 이제부터 평화의 독립군이다  
농사를 내려놓고, 삼도 호미도 내려놓고,  
먼저 평화의 농사를 짓겠다

쫓겨난 빈손으로 촛불을 들고  
너희들의 미사일  
너희들의 전투기  
너희들 탐욕과 전쟁의 마음을  
내 안에서 조용히 불사르겠다  
불살라, 이 새싹같은 촛불을 들고  
저 우는 들의 눈물을 기름부어  
너희들 무기의 어둠을 불사르겠다  
우리들 인간의 봄을 시작하겠다

이제 나라도 정의도 없는 우리는  
미군의 총칼에 울부짖고

미군의 폭력에 피흘리는  
지구마을 어린 것들을 보듬어 안고  
국경없는 평화의 봄을 꽃피우겠다

이 들녘에 떠오르는 아침해는  
누구도 홀로 가질수는 없듯이  
이 들녘에 차오르는 봄은  
누구도 홀로 맞을 수는 없듯이  
대추리 도두리에도  
전쟁의 바그다드에도  
새만금에도  
쿠르디스탄에도  
봄은 어디에서나 봄이어야 한다  
아아 봄은 누구에게나 봄이어야 한다

우리땅을 지키기 위한 촛불행사 579일째  
2006년 4월 2일 대추리에서 박노해

허위의식을 깨우는 평통사로!

평통사 공동대표 김창환

그야말로 만화방창한 봄이다. 제주도에서 북상한 화신이 이 즈음에 이르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남녘에서 북녘까지 산하가 온갖 꽃으로 장식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겨우내 수액을 안으로 모은 채 엄동설한을 견뎌낸 초목들은 봄을 기다렸다가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요 하늘의 이치이다.

남북의 산과 골짜기는 저러한데, 이 땅에 터 잡고 살아 온 사람들한테는 한가로이 봄맞이 꽃놀이에 마냥 취해 희희낙락할 수 없게 한다. 옛 시인의 말마따나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봄을 느낄 수 없도록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요인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분명 겨레의 봄이 오긴 했는데 봄을 느끼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분단 후 길고 긴 겨울 동안 서로 적대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상호 외면하도록 강요하는 틀과 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보안법이 제도적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보다는 나라의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논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여태까지 짓누르고 있다. 혹자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있으나마나 한 구시대적 유물이라 하지만 언제쯤 전가의 보도로 다시 시퍼렇게 날을 세울지 알 수 없다. 최근, 6·25전쟁에 대해 그것이 남침이었다 하더라도 가치판단과 정의적 개입이 없이 학문적으로 객관화하자면 ‘통일을 위한 내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본다. 만약 이런 논리로 본다면, 독일의 통일은 통일이고 베트남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텐데도 말이다. 둘째로, 지각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여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당연히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희망은 우방과 이웃 나라들이 통일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의 이해타산이 우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에 의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공조로 통일의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유효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일이다. 쇠불이에 의지하여 힘겨루기를 해서는 민족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쪼들리게 할 뿐이다. 평화와 통일도 그만큼 멀어지게 한다. 더 이상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입, 군사력증강을 해서는 안 되고 상호 군축과 평화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넘겨 준 작전통제권을 이른 시일 내에 되찾아 와야 한다.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에다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넘겨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셋째로,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의 평택 사태를 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전쟁억지력의 역할을 해 온 전방배치 미군을 한강이남 안

전지대인 평택 팽성읍으로 대피시키겠다고 한다. 더는 인계철선(trip wire) 구실을 앓겠다는 말이다. 이것은 중대한 상황 변화를 의미한다. 그 핵심은, 이북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만으로 가능하므로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1월 19일에는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듣기에도 생경한 용어인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주한미군의 주 임무로 밝혔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아시아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 양안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자칫 한반도를 국제전의 싸움터로 만들지도 모를 위태로운 일인 것이다.

평택에는 이미 458만 평의 땅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349만 평의 땅에 기지를 확장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황새울의 광활한 옥토에 이제 군사기지를 설치하면 향후 수십년간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러매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으로 수로를 틀어막고 농민들을 내쫓으려만 말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공론화하여 가까운 통일시대를 내다보면서 당당히 평화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월남전 파병,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으로 하여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보은론을 말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집회장에 나와 부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성조기를 흔드는, 수치스런 숭미 사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미를 외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양국이 대등하게 실질적인 호혜평등과 선린우호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군사력 강화,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등 평화나 통일과 거리가 먼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이웃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우리 평통사 동지들이 나서서 안데르센 동화에서 보듯 ‘별거벗은 임금님’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허위의식의 껍데기를 훌훌 벗어 던지게 하자.

전래동요처럼,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대중화 전문화 전국화로!

한미연합 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의 문제점을 밝힌다 1)

미군문제팀/인천 평통사 오혜란

## 1. 들어가며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훈련<sup>2)</sup>이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의 점령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작전 실행 훈련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 Foal Eagle)이 대북 침략연습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훈련 상황을 브리핑하는 한미연합사 관계자의 생생한 육성으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륙훈련 현장을 녹화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해안방어부대 및 지원포병을 무력화시키고, 지대함 미사일, 방공 미사일, 지휘통신시설 등 북한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과 평양 인근의 거점 확보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 점령을 결심하고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북한 서해안 지역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전개 양상 일부가 세상에 드러났으나 '몸통'은 아직도 짙은 어둠 속의 베일에 싸여있다.

한미연합 대북 침략연습은 남북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며, 그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에 대한 공개와 이의 중단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조건임은 명확하다.

냉전적 사고와 반복 대결의식에 찌들어 동족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연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군사당국자들의 무감각과 한미동맹 강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반복적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를 끊임없이 되뇌는 통일부와 NSC의 무책임한 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추동력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구를 읽어내는 감수성과 혜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실현하고자 말겠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한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평화감시활동과 대중적인 반미평화운동만이 이를 폐기하는 첩경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진정한 추동력이다.

이 글은 평통사가 RSOI&FE 대응 투쟁을 계획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메모, 사무처 활동가들의 현장 답사 및 현지 주민들의 증언, 일본 AWC 위원회 및 이시우의 도움말 등 실천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 2. 베일에 싸인 RSOI&FE 연습의 전모

한미연합 연습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

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의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등 자국의 음흉한 군사적 의도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큐리티에 공개된 자료 및 국방 백서, 신문기사,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RSOI&FE 연습의 연원,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을 추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우선 한미양국은 1977년 제1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각종 한미연합연습(3)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79년 2월 15일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은 본 제도에 오르게 되었다.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FE4)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한미양국은 ‘전쟁 억제’, ‘한국 방위’를 RSOI&FE 연습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있다.

실제 국방부가 발행한 2004년 국방백서에는 RSOI&FE 연습이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정상 전개 보장 및 한국군 전쟁지속 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지휘소 연습”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RSOI&FE 연습은 작전계획 5027의 실행 훈련이며 미국 군 전력의 70% 이상이 증원 전력(5)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방어연습이 아닌 노골적인 대북 전쟁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1998년 들어 공격적으로 변화(5027-98)된 이후, 5027-04에는 북한의 전략거점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은 물론 북한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점령계획까지 포함(2002년 한미 국방장관 전략기획 지침6))되어 있으며, 상륙작전과 공중강습작전을 통한 이라크전쟁 방식의 우회 및 돌파에 중점을 둔 반격전과 한미 연합 해병대가 북한 동/서해안에 상륙하고, 특수전 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하여 동시다발로 평양을 포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RSOI&FE 연습에 대북 선제공격과 북진을 위한 연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미군사당국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RSOI&FE 연습은 실제 전투를 치르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연습 내용과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RSOI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부산과 광양,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 들어오며 (Reception) 경북 왜관 및 대구의 19지원사와 캠프 험프리에서 대기(Staging)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에 따라 증원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 및 전장에서 통합 (Onward Movement & Integration)되는 일련의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및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익히기 위한 지휘소 연습이다. 1부는 연합사·주한미군사·한미지원부대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 및 RSOI와 병참에 관한 세미나, 2부는 야외 기동훈련, 3부는 지휘소 시뮬레이션 훈련, 4부는 사후검토 세미나, 특수작전 등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다. 또한 2004년에 평택 항에서 실시된 프리덤 배너 훈련과의 상호관계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글로벌 시큐리티의 ‘Foal Eagle 02’에 따르면, RSOI와 연계 실시되는 독수리 연습은 도하 훈련과 통합 두 부분에 초점을 둔 야외기동연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모가 공개되지 않

았으며, 군단급 야외기동연습에서 부대단위 훈련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한미연합사는 3월 25일~31일까지 전시증원 연습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06 RSOI&FE'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명과 주한미군 1만 7000여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훈련 내용과 목적, 규모와 전개양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RSOI& FE 연습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주일미군 및 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 연습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RSOI&FE 연습 직전인 2월 23일~3월 3일까지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Keen Edge 미일 공동 통합 지휘소 연습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행동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고 일본해에서 주일 미 해 공군과 해상 자위대의 합동 미사일 방어와 감시활동, 항공자위대에 의한 재한 일본인 수송 연습이며, 동중국해에서의 중국함정과 잠수함 차단 연습 및 육상자위대의 서부방면대 투입과 항공자위대 소속 F15 비행대의 오키나와 등지로의 전개 연습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이와쿠니 주일 미 해병대 기지 소속 FA-18 전투기가 포항 앞바다에서 공중 급유를 하고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캠프 자마의 주일 미 육군 및 제17 전역지원군 사령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RSOI와 을지포커즈 렌즈 연습 기획 임무이다. 또한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작계 5027을 지원하는 키티호크 등 미 해군 7함대의 모함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7)</sup>

이처럼 RSOI&FE연습 직전에 북한과 중국을 가상 적으로 하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이 전개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모기지로 하는 미 해병대 및 해·공군이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RSOI&FE는 주일/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연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RSOI&FE 연습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연습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RSOI&FE 연습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추진 잠수함에 실린 토마호크 미사일의 핵 탑재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 핵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이시우는 2002년에 공개된 1994년의 미국 핵 태세 보고서를 인용해 핵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LA급 핵잠수함이 25%이며, LA급 핵잠수함이 수시로 진해항에 기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3. 밝혀지는 RSOI&FE 연습의 문제점

①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후방에서 실시되는, 북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습은 명백한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연습은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계 5027-04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RSOI&FE 연습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한다는 점, 상륙훈련과 군사분계선 바로 코밑인 이포대교에서 도하훈련을 전개하는 점, 군사분계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해 평택 항과 광양 항을 이용한다는 점 등 공격 위주의 군사연습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간 대부분 부산 항을 이용하던 작전용 궤도차량, 탱크, 장갑차 등 군수물자 수송을 2005년부터 광양 항으로 확대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동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19지원사8) (미 501 증원지원여단으로 개편 예정)가 있는 캠프 케럴을 광양 항 배후단지로 이전시킬 계획인데 광양은 병력과 장비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항만을 끼고 있고, 오키나와 기지와는 가장 가까운 곳의 하나로서 평택-광양-오키나와를 잇는 대 중국 봉쇄선의 동쪽 벨트의 한 고리이다.

②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전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비용9)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이 남북간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이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첨단 고성능 정밀무기를 동원한 세계최대 규모의 RSOI&FE 연습과 같은 각종 한미 전쟁연습 때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항상적인 군사대결과 전쟁위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3월 말로 예정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감안한 통일부의 '06 RSOI&FE 연습'의 연기 요청에도 이를 강행한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이야 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장경옥 변호사에 따르면 작계 5027-04 및 이에 의거 평양고립을 위한 상륙훈련은 이 과정에서 헌법의 평화적 통일, 국제 평화주의 및 침략적 전쟁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의견이다.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과 그에 따른 상륙훈련 내용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한미연합 훈련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매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의 전모를 밝히고 이를 폐기하는 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 4. 글을 마치며-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위협을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 연습 작성권한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채 우리 군을 좌지우지 하는 주한미군과 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과 3월 말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의 진전을 위해 06 RSOI&FE 연습의 연기를 추진하였으나 주한미군이 이를 거부10)하고 한국 국방부가 이에 굴종해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상대를 적으로 한 대규모 전쟁연습의 중단과 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초보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화단체와 시민사회 진영은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 와 이에 의거한 대북 전쟁연습 폐기 촉구 투쟁을 국민대중과 함께 벌임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정치적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1) 이글은 한미연합연습의 문제점 첫 번째 글로서 6월 림팩연습, 8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계기로 그 문제점을 계속 밝혀 나갈 것이다.

2) '06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일환으로 진행된 훈련이다.

3) 윌리엄 아킨은 그의 저서 『암호명』에서 한미사이에 적어도 50개에 이르는 각종 암호명의 합동 군사작전이나 훈련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되었다고 쓰고 있다(한겨레 2005. 2. 20)

4) 1961년부터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1995년부터는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FTX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5)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증원전력은 육해공해병대 포함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며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스텔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와 이와쿠니의 미 해병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된다. 최근 미국은 69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전력의 현실성 문제와 신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개념의 발전으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진 의원은 2004년 작계 5027-04에는 증원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빠졌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6) 한미연합사는 대북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 정권과 북한군이 유지돼 반격할 경우 5027로, 반대로 북 정권이 붕괴될 경우 5029로 대응하도록 전략기획 지침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권영길 의원실, 2005.10.10)

7) 연합뉴스 2005.9.21

8) 주한미군의 병참업무를 맡고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이며 총120여만평, 4개의 캠프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캠프 헨리[19지원사령부(3성), 5만8천평], 캠프 워커[골프장 등 편의시설, 22만평], 캠프 죠지[숙소, 1만9천평]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며, 캠프 캐럴[군수지원단, 83만평]은 대구와 구미 사이의 왜관에 있다. 백청장은 이 캠프 캐럴 중 수리창 일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수리창이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19지원사 전체의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광양 항은 120만평 정도의 규모로 동북아 최대의 병참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9) 임종인 의원의 질의에 따른 합참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간(2001~2005년) 약 130억원을 한미연합연습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10) 문화일보, 2006.1.11

사라진 상륙전의 진실  
보수언론, ‘북침연습’ 외면하고 ‘몰이식’보도만

통일뉴스 기자 정명진

3월 30일 오전 8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서해상에 떠있는 20여 척의 군함. 4000야드의 바다를 헤치고 몰려오는 수륙양용상륙장갑차.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목격한 궤도로 짓이기며 위용을 내뿜는 탱크.

한 컷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및 독수리연습(FE)에 대해 ‘가급적 알리지 말자’는 ‘Low-Key’로 합의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대언론 홍보방침’도 한몫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일 현장에 와서 국방부에서 마련한 언론 홍보용 연습장면을 찍고 가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RSOI-FE는 장소, 일정 등이 일체 비공개로 진행돼, 유일하게 알려진 만리포해수욕장에 기자들이 전날부터 진을 치고 숙식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취재진이 몰리자 언론에 크게 알려지기를 기피했던 국방부 공보관계자들의 당황한 모습도 역력했다.

그렇다고 취재진들이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의 ‘대북공격성’과 같은 숨은 내용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에 몰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당국의 비공개 방침으로 구하기 힘들어진 RSOI-FE의 ‘군사연습’ 사진 한 장을 위한 것이다. 목격한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자들 사이에 ‘췌기자’ 한 명 제대로 찾기 힘들었던 상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RSOI-FE가 방어적 연습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연습’이라며 상륙해 들어오는 장갑차를 향해 군사연습장인 해수욕장 해변으로 뛰어든 것이다.

군사연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던 기자들도 일제히 이들에게로 몰렸다. 이들이 ‘동쪽 코앞에서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펼치자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에도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의 이면적 모습이 담기게 됐다.

일반적인 군사연습이 이들 활동가의 시위로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됐으니 기자들로서는 ‘한 건’ 건진 셈이다. 상륙수송기인 LCAC에서 하선하던 탱크 앞을 막아나선 활동가들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만 했으면 나와라”며 탱크의 상륙을 찍으려는 한 사진가의 ‘꼴불건’을 제외하고 말이다.

3월 31일. 중앙일보 조간. 사진보도.

“이들(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은 시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신들이 몰고 온 승용차를 이용, 13km쯤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만 확인하고 훈방조치했다.”

언뜻 보면 사실만 기술한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날 활동가들은 9시 50분 경 자진해 산하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만리포지구대에서 출동한 현장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로 ‘떠났다’.

뒤늦게 경찰은 이들의 차량의 이동을 경찰차 4대로 막았다. 현장에 있었던 한 활동가는 경찰은 일부 활동가들이 장갑차에 올라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알고 풀어줬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위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현장에 와서 보고 쓴 것이냐’고 따져 물었으며, 기자는 인터넷 매체의 동영상을 보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정정보도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곡에 불과했다.

3월 31일 주요신문 보도부터 4월 4일 박근혜 대표 발언까지

문화일보 3월 31일 석간  
한미합동 군사훈련장에 범민련 등 난입 “양키 고 홈” 시위  
작년 이어 또...국방부. 경찰 ‘팔짱만’  
한미연합사 “상륙정 막는 등 부대원 안전 위협 심각”

조선일보 3월 31일 인터넷판  
“누가 敵이지?”  
韓美연합 상륙작전 ‘시위대와 전쟁’

동아일보 1일 인터넷판  
“한미연합 군사훈련장에 진보단체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국방부와 경찰이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1시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 1일 인터넷판  
국방부·경찰 예방조치 안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장에서 또다시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연례 행사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기습 시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4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데일리안 보도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방어’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훈련장에 침입해 심지어 장갑차 위에까지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시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대충 넘어가 문제를 키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0일 한미연합상륙전연습 반대 시위를 했던 단체들에게 ‘없던 일로 하자’던 국방부는 4월 1일 자로 “훈련통제단장(대령)을 고발인으로 하여 시위 가담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몰이식’ 언론보도 속으로 사라진 '상륙전'의 진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3월 30일 오전 8시 25분 한미연합상륙전 연습을 앞두고 ‘개방된’ 만리포해수욕장 한 가운데 차려진 ‘임시중앙통제소’에서 한미연합사 자체 ‘비공개’ 현장 브리핑이 진행됐다.  
브리핑을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 실시되는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된다”,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 “(본 군사연습의 가정상황으로)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고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RSOI-FE에 대해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브리핑에 이어 훈련장으로 뛰어든 활동가들이 외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쟁연습 중단하라’는 구호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 주는 ‘당국자의 사실확인’이었다.

비공개 브리핑이었지만 개방된 곳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기자는 없었던 것일까. 으레 ‘군사연습하면 사진만 찍으면 된다’는 기성언론들의 사고방식도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 데 한몫 한 것이다.

본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단독보도 했음에도 보수언론은 침묵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주장한 활동가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 부추기고 있다.

‘만리포상륙전연습 시위자 고발조치’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까지 나서서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로 ‘진실’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기자로서 씁쓸함마저 느껴진다.

동북아 최대의 물류산업단지와 동북아 최대의 미군병참기지라는 기로에 선 광양을 가다

신속대응팀 김종일, 미군문제팀 박종양

주한미군기지이전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광양대책위)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광양만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봉산 중턱에 올랐다. 총 3단계로 나누어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와 컨테이너 부두조성 공사, 그리고 배후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컨테이너 부두가 완공된 곳에서는 물류의 하역작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편도 6차선의 산업도로와 산업철도가 완공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동북아 최대의 물류 거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이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말 백옥인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정비창고를 광양항 배후부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이다. 이어서 미군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군사병기와 병참기지를 광양항에 둔다는 계획하에 2006년 2월~3월 미 국방부 직속기관인 군수사령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이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최대의 물류산업단지가 되느냐, 아니면 미군의 동북아 최대 병참기지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주한미군의 병참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대한 행정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곳은 주한미군19지원사이다.

주한미군19지원사는 총120만평, 4개의 캠프로 구성되어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는 3개의 캠프가 소재한다. 먼저 캠프 헨리는 19지원사령부로 3성 장군이 총 지휘를 한다. 또한 골프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캠프 워커, 숙소인 캠프 조지가 역시 대구에 있다. 그리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19지원사 군수지원단인 캠프 케롤이 소재한다.

1960년 5월에 완공된 캠프 케롤은 6병기대대, 16의무 병참대대, 23화생방대대, 307통신대대, 57헌병중대, 293통신 중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병참, 전투전술 장비, 전시대비 물자 비축과 정비, 탄약관리, 그리고 의료보급품 저장관리, 화생방 대비, 통신을 주 임무로 하며 그 면적이 83만평(2001년 지자체조사에는 97만평)에 이른다.

백옥인 청장은 왜관의 군수지원단 중에서 일부인 정비창을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편의상 한국에서 분류하는 것이며 정비창의 이전은 군수지원단 전체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광양대책위관계자는 주장한다.

만약 광양만에 19지원사 전체가 이전하게 된다면 백옥인 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60만평 정도가 아니라 120만평정도로 조성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최대의 병참기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올해 여름에 19지원사를 501증원여단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한 언론에 따르면 부르어 미 군수수송 부사령관이 지난 1월 11일 이곳을 직접 시찰했다고 한다. 그는 광양만 지역은 병풍과 같이 육지로 둘러싸여 해풍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집안시설이 바로 되어있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한미연합전시 및 독수리 연습(RSOI&FE)때 투입된 군사장비 1,000여대를 시범적으로 10여 일간 광양항을 이용해 하역했다고 국방일보가 보도했으며 부산항을 이용했을 때보다 시간이 1/2로 단축되었다고 광양대책위 관계자는 증언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로 조성중이며 지구별로 3단계의 공사가 계획, 진행되고 있다. 광양대책위 관계자는 광양지구와 율촌지구의 동,서측 배후부지~황금산업단지~초남, 세풍산업단지~율촌산업단지 중에서 황금산업단지 65만평을 중심으로 총 120만평의 미군 병참기지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지를 위한 활동과 대책위구성에 나섰다. 현재는 123개 단체가 주한미군기지이전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에서 함께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를 분위기를 살피던 지자체와 의회에서 모두 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5.31 선거의 후보들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광양만의 동북아 최대의 병참기지조성을 추진한다면 평택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평택과 광양이 한반도를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택은 농민들이 바다를 메워서 옥토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는 소중한 땅이다. 광양만은 노동자의 힘으로 바다를 메워서 앞으로 물류산업단지를 건설할 공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농업과 공업을 짓밟고 그곳에 동북아 전초 군사기지와 동북아 최대의 병참기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제주에서, 광양에서, 광주에서, 군산에서, 평택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족의 평화를 위해 외치는 자주의 함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하다.



##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방문보고서

미군문제팀 박종양

어느 나라이든, 어느 지역이든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 평화는 없다. 오직 패권을 위한 전쟁 위협과 환경파괴,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적인 피해만 있을 뿐이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지난 3월 21일, 일본의 이와쿠니 시민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낯선 일본인들의 표정에는 뭔가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미동맹의 전환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우와 비슷해 보였다. 그 중에 이와쿠니 미군기지의 강화(확장)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일본의 야마구치현 동쪽 가장자리의 이와쿠니시에 위치하며 하구 삼각주 지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폭투하를 받은 히로시마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1938년 4월, 구 일본해군이 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에게 새벽에 통고하고 그 날 중에 강제 철거를 실시, 광대한 농지와 택지를 일방적으로 접수해서 군사거점(비행장)을 건설했다고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이후, 이 비행장은 미해병대에 의해 접수되어 영 공군, 미 공군이 주둔했고,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유엔군으로 영 해군부대, 미 공군 및 해군부대의 일부가 이와쿠니기지에서 한반도로 파견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와쿠니기지는 한국전쟁의 폭격-지원-보급기지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다.

1952년 4월, 이와쿠니기지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서 주일미군기지가 되었다. 그 후 1962년에 공식적으로 주일 미해병대 기지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 때에 사실상의 출격기지의 역할을 했으며, 걸프전쟁에도 일부 병사들이 이곳에서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라크전쟁에서도 이와쿠니기지에 소속하는 대형수송 헬기가 파견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지의 공식명칭은 ‘미해병대 이와쿠니 항공기지’ (Marine Corps Air Station IWAKUNI)이며 자위대 제31항공군(航空群), 제111항공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다. 참고로 미해병대 항공기지는 모두 7개인데 그 중 해외에 있는 것은 2개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이와쿠니 기지, 또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후텐마기지라고 한다.

이와쿠니 기지는 현재 574헥타르[약 172만2천 평]이며, 기지의 앞바다를 매립해서 총213헥타르[63만9천평]를 확장하고 이곳에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공사에 따라 수심 13m인 대형항만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곳에는 항공모함까지 접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공사에는 약 2,400억엔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모두 일본이 부담했다고 하니 미군기지를 위한 대우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의 캠프 즈케란에 사령부를 둔 제1해병 항공단의 지휘하에 있으며, 주력항공기부대는 주일미 제12해병 항공군이다. 이들은 유사시가 되면 제일 먼저 출격하여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지상부대의 상륙작전 등을 상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FA-18호넷 전투공격기, CH-53D, AV-8B해리어Ⅱ공격기 등이 있으며 이곳을 중심적인 거점으로 하여 한미합동군사연습 독수리연습이 실시되어왔다고 한다. 특히 FA-18전투기 등은 포항 앞바다에서의 공중급유나 포항 상륙에 대한 엄호훈련을 위해 전면적으로 참여해왔다. 이와쿠니 기지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날의 한국전쟁 당시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군재편은 기지나 병력을 삭감하면서도 그 군사력은 더욱더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거점을 평택 등으로 집중하고 성격을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군대로 강화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미안전보장협의회(2+2)를 통해 미육군 제1군단사령부(워싱턴)를 캠프 자마로 이전 등의 주일-주오키나와 미군의 재편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미군은 통합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군의 항모에 해병대 항공기부대를 투입하거나, 해병대부대 교대계획에 해군부대를 편입한다.’고 하고 이와쿠니 기지에서의 부대교대를 그 주요한 실례로서 들었다고 한다.

현재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미해군 소속인 항공부대와 해병대 소속인 항공부대의 ‘통합운용’의 자리이다. 해병대 항공부대는 전부터 해군부대를 보완하는 형태로 항공모함으로 파견되고 있었지만 그 대상 부대가 확대되어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어있던 FA-18부대 4개 비행대도 항모 함재기부대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와쿠니 기지 보도부는 ‘미국은 경비절약, 긴급시 대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전투공격부대를 공통의 부대처럼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와쿠니 기지는 종래의 해병 항공군(비행대대)의 출격거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항모함재기부대의 훈련과 출격의 기능을 갖춘 기지로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이 구상하는 서태평양에 항모 2척을 배치한다는 안도 생각해보면 이와쿠니 기지가 그 함재기부대의 거점이 될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거대한 공격거점기지로 이와쿠니 기지가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만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소음, 환경, 범죄, 사고 등등. 그러나 이와쿠니시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 가운데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현 이와쿠니 시장은 미군기지 강화(확장)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며, 지난 3월 12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다. 먼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불만들을 투표를 통해서 표출시키는 것, 그리고 주민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50%가 넘었을 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참고로 이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 때 평균투표율은 38%정도 이다.

이 투표의 성사를 위해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민모임’결성했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가정에 유인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2월 초 오키나와에서 열린 ‘미군기지 철수 심포지움’에서 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와 침략에 대항하는 범아시아공동행동(AWC) 구주-야마구찌 위원회는 약 1달간 주민투표에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키나와 등 이와쿠니로 이전할 예정인 지역의 단체들까지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 최종 58.6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반대가 4만5천표로 약

90%가 넘었다고 한다. 미군기지의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현으로 끌어냈다는 평가 속에 일본전역은 놀라움으로, 활동가들은 승리감으로 고무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 먼저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라 이와쿠니 현 시장은 “훈련을 분산시키자.”라고 태도를 바꾸고 있으며 고이즈미도 애써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두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쿠니시가 개편되어 주변 8개의 군소도시가 통합되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성과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의 단체를 ‘주민투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지강화 저지사업을 중심으로 이와쿠니 주일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과 같이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올 듯 하다. 또한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일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전국단위의 조직을 희망하고 있다.

이날도 이러한 이와쿠니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요구와 주민투표결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세미나와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 및 서한전달, 야마구찌현의 미군기지 대책단의 서한전달 등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RSOI-FE)에 대해서도 주일미군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심각성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도 취했다. 일미동맹은 중국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도 이렇게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동북아 패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나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평택이요, 오кина와요, 이와쿠니요, 군산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세계의 민중들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이와쿠니 미군기지의 방문은 외국을 갔다 왔다는 느낌보다 같은 문제를 앓고 살아가는, 그래서 비슷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 동지들을 만나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투쟁은 외롭지 않다.

## 평통사 식구 3년차, 아가타 선생님

어느 날 분회 모임에 나온 한 회원이 묻는다.

“어제 근처 지나가다 들었는데 사무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외국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외국 분이 사무처 사람들은 모두 워크숍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누구세요?”  
아가타 하운(Agatha Haun) 선생님을 두고 묻는 말이다. 생각해보니 평통사에서 자원활동을 하신지 2년이 되었다. 그간 평통사의 한 일원으로 묵묵히 일해오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관해 관심이 많았지요. 오랫동안 여러 다른 나라의 NGO단체에서 일해 봤지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시아 지역의 NGO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서 여러 곳에 신청서를 보냈어요. 마침 ‘Non Violent Peace Force’라는 단체의 한국 대표이신 김 영 목사님을 통해 홍근수 목사님을 소개 받았어요. 홍목사님 그리고 평통사 실무자들과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고 제 뜻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일본어와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같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거나 그 나라의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활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외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다가 새로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그 나라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참 좋고요.

전에 한국 민속촌에 가봤는데 한국의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박물관도 여러 곳 가봤고 좋았지만 민속촌은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가장 재미있어요.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좋아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은 갔을 거예요. 넓긴 하지만 모두 둘러봤지요. 신라시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불교문화가 인상적이고,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다고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 반미운동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미국에도 평화운동 단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 다닐 때 International Relation club이란 학생신문을 만들고 엠네스티에서도 활동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집회에도 참가해봤죠. 평화는 꼭 지켜져야 해요. 전쟁을 즐기고 거대한 무기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2004년 미국 대선에서 40%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시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미국 국민의 40%는 선거에 관심이 없죠. 또 투표에 참여한 60%가운데 부시를 지지하는 사

람은 50%가 좀 넘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부시가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시면서, 얼마 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한미연합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기양양 그 연습을 구경하는 한미 양국 군인들과 부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내저으신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운동, 특히 한국의  
평화운동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현재는 미국의 힘이 강해서 당장 미군을 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이 상징적으로 중요하지요. 한국 정부는 아직도 미국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와 비슷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팽팽한 세력관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지요.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독일 틈새에 있었던 핀란드와도 비슷해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로부터 벗어났지만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부는 미국이 조종하고 있어요. 미국에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들이 기지를 확장하고 싶으면 확장을 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해요. 많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유럽과 미국은 생활수준이 비슷하지요. 미국도 유럽은 좀 부담스러워 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한국의 평화운동도 유럽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 일본, 미국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 NGO 활동을 하셨으니까 한국의 평화운동과 다른 나라 평화운동과의 차이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유럽에서는 평화운동이 더 일반적이에요.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평화운동을 하고 미국에 반대하지요. 한국은 일본과 조금 연대하고는 있지만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소련이 무너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독립했을 때 동·유럽은 갈라져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미국에 반대하고 있어요.

유럽처럼 한국도 여러 다른 나라의 평화운동단체와 연대를 해야 해요. 더욱 많은 관계를 가져야 해요. 한국의 평화운동은 일본의 반기지운동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유럽, 미국 등지의 평화운동과는 아직 함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더 연대하기가 유리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해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동서양간에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키에 머리칼이 아주 짧은데다가 언제나 짙은 색의 등산복을 입으셔서 몇몇 회원들에게 남성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재미난 이야기에 웃음을 지으실 때 보면 입술 빛깔이 고운 아름다운 여성평화운동가다.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한 손에는 영락없이 책을 들고 읽으면

서 느릿느릿 걸으신다. 너무 찬이 없거나 외국 사람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점심 식단에  
도 푸짐한 양을 잘 드시는 것을 보면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체질인 건 분명하다.  
인터뷰 끝에 평통사의 목적이 좋다고 생각한라며 얇게 미소를 띠는 아가타 선생님,  
“참 고마운 인연이고요, 늘 건강하세요.”

글 | 황윤미

팽성에서 보내는 편지

[060315] 잊혀지지 않는 얼굴

- 황새울침탈 후

경아언니를 모시고 박애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다 보니 웬지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활동가 분들도 주민 분들도 아닌것 같은 그들은 고용된 용역들이었어요. 엉망이 된 바지며 얼굴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겠지요.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른거리는 얼굴은 코옆에 살점이 뜯긴 것처럼 다친 한 용역아저씨의 얼굴입니다.

망연하게 서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얼굴.

상처 받았구나.

아저씨도 상처 받은거야.

잊혀지지 않는 얼굴과 ‘그럼 나는 누구에게 가서 말하냐’는 원망 섞인 용역의 한 마디.

아저씨. 여기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억눌린 분노와 화를 돌릴 길이 없어 폭력을 업으로 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웬지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치게 만들면서돈 때문에 몸 팔고 마음 파는 천박한 놈들이라고 분노에 차서 소리도 질러봤지만 원망해야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내달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감상에 젖은 생각인가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아직 살만하니까, 마음에 여력이 있으니까 그 놈들 걱정하고 자빠졌을수도. 투쟁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도 참지 못할 분노로 그들에게 달려들 수도 있겠죠. 어르신들과 동지들을 다치게 한 그들에 대한 분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활활 타는 것 같아도, 나쁜 놈들 생각하는 제가 천하의 몫쓸 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폭력은 싫어요.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060320] 어머니 주무시고

- 잠시 다니러 온 고향집에서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그 말은 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최소한의 소유-허울뿐인 권력처럼-마저 스스로 거두는 말처럼 느껴져 굉장히 슬프고도 두려울 정도로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그곳에 가냐고.

차라리 절에 들어간다고 난리칠 때는 오히려 담담하시던 두 분이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아선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님을 홀대하면 정말 안되는 구나...

그런데 이번엔 정말 가야만 할것 같은데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스런 마음만 안겨드리고 싶진 않아서 오늘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께 조심스레 일주일간 죄송했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 보았지만 역시 그런 건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걸까요?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논쟁과 폭력으로는 더이상 딸의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알고 말구요. 저 또한 경찰에게 대항하듯이 아버지께도 주체 넘게 얼마나 덤비는 딸이었는지.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라고 하니, 서울까지 왜 가냐고, 그 사람을 왜 만나냐고,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냐고, 그럼 당신이 사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 억지 속에 딸에 대한, 오로지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얼마나 어긋나게 표출되는지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자리에 누워 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아랫방에 내려가 서성이니 이야기 좀 해보라는 엄마. 뭐든지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시는 엄마.

치킨 시켜줄까? 딸기 먹어라, 너 먹으라고 남겨뒀다.

치킨은 무슨, 한것도 없는데, 밤에 먹으면 살찐다. 싫다.

국에다 맨밥을 먹고 따뜻한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한가하게 귀를 파는 저를 보고 엄마가 자신도 귀를 파 달라고 하십니다.

못난 딸도, 손맛이 아주 나쁜건 아닌지 제가 해드리는데 맛사지며 귀청소, 흰머리 골라드리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어머니 귀를 파드리며 조곤조곤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니까 오히려 저를 의아해 한다고.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처럼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고 걱정하는 어르신도 있다고. 생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공부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마치 학교를 포기한 듯이 보이시나 봐요- 최소한의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하니까 일을 할것 같다는 것들...

어머니는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반쯤 졸리워 나른한 표정이십니다.

엄마, 들었나?

엄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

응?...

엄마 잠오제?

어... 잠온다

짐을 부쳤다는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간다는 말도 아직 못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다시 올라가려구요.



지금은 휴학생이지만 정말 팽성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 일이 하고 싶네요. 일을 한다는 것이 돈을 얻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있으니까... 그렇게 차비도 벌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벌어 “엄마 나 여기서 잘 살아. 기대지 않고 잘 살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은 기대면서도 당당하게 기대고 또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머니는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060322] 새벽 -팽성으로 갑니다

이제 팽성으로 갑니다.

엄마와 반쯤 웃고 반쯤 울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는 이번에도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궂이 나는 내 한 몸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네가 내가 못가게 한다고 안 갈거냐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놓으십니다.

두 분께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방을 치워야지요.

엄마는 엉망이 된 방을 보고 거기 가더라도 네 짐이며 물건 제발 좀 잘 챙기라고 하십니다. 짐을 먼저 부치고 난 다음에야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섭섭해 하시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하니까 불안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는 감이 잡히시나 봐요.

가서 돈 많이 벌어 돈 부쳐라고 우스개소리도 하시고

(사실 진담 같음)

예쁜 옷이나 화장품 사서 보내라고도 하시고

(정말 진담 같음)

이참에 운동해서 떠보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엄마 내가 외모는 썩 되지만 그건 좀 아니다)

하여튼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격한 이미지는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오늘 내일하는 와중에 딸마저 먼 곳으로 가버리면 엄마 마음 많이 섭섭하겠죠?

갈 사람은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생사로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이야 어떻게 말로 다할까요. 떠나도 마음이 아프고 며칠 더 머무른다고 해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맘이 꺼림직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맞사지 정성스럽게 헤드리고 방을 치우려구요,

나는 이제 병태(아버지)랑 단둘이 살란다- 너는 집에 오지마라 흥.

엄마도 참, 이제 안 볼것 처럼 그러네.

전화 매일 할게요. 편지도 쓰고.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엄마가 알게 헤드려야지.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만큼 씩씩하게 투쟁해야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더 이상 말리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기도 합니다.

두 분이 참고 있는 숙내를 가늠해 보며 남은 짐을 꾸립니다.

근데 택배 한번 더 붙여야 하는 거 아닐까?

남은 짐 들고 가려니 완전 짐꾼되겠소.

으샤 으샤.

검은사슴은 3월 6일 대추초교 침탈 영상을 보고 가방하나 달랑 매고 팽성으로 날아든 젊은 여학생이다. 열흘을 팽성에서 지내고 난 후 그녀는 고향집에 있던 짐 모두를 팽성으로 보냈다. 그녀가 대추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 두달이 되어 간다. \_ 편집자주

“대추리 ·도두리의 봄은 잔인했다”

## 『국방개혁 2020』,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군축팀 김판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12월 『국방개혁기본법안』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국방문민기반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을 중점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군 구조 및 전력발전 분야에서 기술위주 질적 첨단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예비전력 규모를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하여 타격능력과 정보감시·지휘통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기간인 2006~2020년 까지 개혁소요 67조원을 포함한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야할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부패·무능집단으로부터 탈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여전히 미국추종과 남북 대결적 관성에 사로잡혀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함으로써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더욱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민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을 국방개혁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이에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방개혁 2020』은 군비경쟁과 남북대결 조장하는 군비증강안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육군은 차기 무인정찰기, 차기 다련장,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한국형 헬기 등을 도입하여 작전능력을 2~3배로 향상시킨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해군은 차기 고속정, 차기 구축함, 차기 잠수함 등을 도입하여 한반도 전해역 감시·타격능력과 대양작전능력을 확보하며, 공군은 F-15K,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도입하여 한반도 전지역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무기들은 대부분 작전범위가 한국방위를 넘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장거리, 중심 타격용 첨단 공격무기들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첨단 공격무기 도입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를 통해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연구원(KIDA)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는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에서 절대우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처럼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한만의 군사력으로도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증강과 함께 한국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남북대결과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조장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국방개악안일 뿐이다.

또한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전력증강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확대되고 있는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방부 자신이 『국방개혁 2020』 안보환경 전망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첨단 공격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의 명분과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2006년 국방예산이 4.6억 달러로 한국 국방예산의 1/50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내세운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국방개혁안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개혁

『국방개혁 2020』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F-15K 추가도입 및 차세대 전투기, 무인정찰기, MD무기, 대형 구축함 및 상륙함 등 첨단무기들은 한반도 전장을 뛰어넘는 광역의, 공격적인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동북아 신속기동군화)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한국 방위를 위한 무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이러한 무기들이 도입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편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대미 군사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4년 제36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은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하였고, 2005년 제37차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국방개혁안은 협력적 자주국방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개혁안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방개혁이 미국의 군사변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기도 전인 2005년 3월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한국군 병력 4만 명 감축 등을 통한 군 구조 개편, 국방부의 문민화, 획득 전담 기관(현 방위사업청) 신설 등 노무현 정부가 군 개혁 목표로 내

세운 것까지 모두 한미 상호연합 방위 능력 향상 및 주한 미군 재편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국방개혁 2020』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군 구조 개편안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주한미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군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생색내기 병력 감축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의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현재 300만 명의 예비전력을 150만 명의 정예예비군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감축안은 현재 한국군의 전체병력 68.1만 명 중 81%나 되는 육군 55만 명을 37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군사대국인 미국 육군이 48.5만 명, 러시아 육군이 32.1만 명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병력집약적인 군대의 하나인 한국군의 근본적인 군 구조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욱이 『국방개혁 2020』에 의해 국방부의 문민기반 확대, 부사관 4만 명 증원, 해안·항만·공항 등 국가시설 경계임무 관련기관 전환, 각 군의 보급·정비·인쇄·지도창·복지단 등 총 28개 부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민간위탁,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전환 확대 등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병력 전원이 전투요원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병력감축안에 의한 실질적인 병력감축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과감한 병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150만 명의 정예예비군 유지계획 또한 상비 병력의 병력감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작고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사회낭비적인 예비군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방부가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장성들의 감축계획은 없이 일반사병의 감축에 치중하는 등 생색내기 병력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마치 대규모 병력감축을 통해 근본적인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현 군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전력증강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0만 명으로의 병력감축은 1990년 이후 국방개혁을 추진한 많은 나라들이 1/2~1/3 이상의 대규모 병력감축1)을 추진한 세계적 추세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도 남한이 북한에 비해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에서 절대 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발달로 병력감축이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과감한 병력감축은 필수적 과제이다.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한국은 육군 중심으로 운용하려는 군사전략에 따라 한국군의 과감한 병력감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대미 군사종속을 극복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한 병력감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다.

2020년에는 지금의 남북의 화해협력 시기를 지나 적어도 실질적인 남북의 평화공존 또는 통일직전 시기로 예상되고 한국과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이 인구의 0.4% 수준으로 대부분 30만 명이하의 병력2)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도 최소한 30만 명 이하 수준으로 과감한 병력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국민고혈 쥐어짜는 국방예산 대폭 증액 요구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개혁소요 예산 약 67조원을 포함하여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2010년까지 매년 9.9%, 2015년까지 7.8% 증액하는 등 2020년까지 매년 평균 6.2%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 소요예산은 개혁기간 중 경제성장률 및 정부재정증가율 평균 7.1% 수준을 고려할 경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6년~2020년 기간동안 매년 평균 41.4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2006년 국방예산 22.5조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정부재정규모 3,700조원의 16.8%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을 위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증액은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할 국방개혁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OECD 평균 사회보장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악화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증액은 최우선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혁 없이 2015년까지 국가재정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군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개혁을 추진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혁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동결하거나 절감한 세계적 추세<sup>3)</sup>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국방개혁의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국방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필수과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음에 따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정권을 미국에 용인해 주게 되고 미국이 패권적인 군사전략과 대북적대정책을 한국에 강요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 왔다.

특히 전시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로,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운용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을 비대한 육군중심의 기형적 구조로 고착시켜 한국군의 균형발전 등 실질적인 국방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1998년 미국은 2015년까지 육군 56만 명을 35만 명으로 감축하는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전시 작전권 조기환수는 국방개혁의 전제이며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작전권 환수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을 뿐 실질적인 조기환수를 늦추고 있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 전시 작전권의 한국군 반환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만 아직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반환)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투자속도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작전권 반환문제를 미 국무기 구매압력에 악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작전권 문제를 한미연합지휘체계 변화와 연계하여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새로운 연합작전 협의·수행 기구 창설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사실상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윤광웅 국방장관도 작전권 반환은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조기 환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군만으로도 대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이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대미 군사주권 회복과 실질적인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력과 작전기획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추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작전권 조기 환수 계획이 빠진 국방개혁안은 대미 종속적이고 비대한 한국군 현상유지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국방개혁기본법』은 전력증강의 정당화 도구

2006년 4월부터 『국방개혁 2020』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국회심의회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방부의 대규모 전력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정당화시켜 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따른 국방개혁 논의가 정부관계자 위주의 국방개혁위원회와 실질적 권한도 없는 국방개혁자문위원회에 한정되어 국민적 논의와 참여가 봉쇄된 자기들만(국방부 및 군부)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논란을 낳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회통과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 2020』의 목표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로부터 출발하지 못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1) <국가별 병력감축 규모> 미국: 1989년 213만명→2003년 143만명, 중국 : 1995년 390만명→2003년 225만명, 러시아 : 2000년 120만명→2005년 85만명, 프랑스 : 1996년 50만명→2003년 25.9만명, 독일 : 1990년 66.5만명→2004년 28.4만명, 대만 : 1994년 60만명→2004년 29만명, 한국 : 1992년 65.5만명→2004년 68.1만명
- 2) <2003년 기준 주요국가 병력 규모> 일본 23.9만명, 영국 20.7만명, 프랑스 25.9만명, 독일 28.4만명, 이탈리아 19.4만명
- 3)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 비율 변화(1985년→2000년, 십억불, 절대가/99년 기준) 「세계의 군사력 01-02, 정보사령부」> 독일 52.2→2000년 28.2, 영국 47.2→33.9, 프랑스 48.4→34.3, 이탈리아 25.4→20.6, 미국 382.5→294.7

##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평통사 사무처장 유영재

### 럼스펠드, 주한미군 추가감축 기정사실화

지난 3월 7일 윌리엄 펠런 미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출석,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 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sup>1)</sup>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추가감축에 관한 기자의 확인 취재에 대하여, 한미간 지휘통제 논의에 따른 최종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한국에 주둔한 미 지상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될 것(may very well end up with other numbers)”<sup>2)</sup>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발언이 추가감축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sup>3)</sup>이라고 펠런 사령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들의 발언은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한미양국이 공식 합의한 계획이 아니며, 규모와 시기도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미국 국방 최고위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넘기는 작업이 완료 단계이고, 지휘통제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전제’는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규모와 시기가 문제일 뿐 주한 미지상군의 추가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sup>

이와 함께 한미양국 사이에는 2년 여 전의 미태평양동맹 정책구상(FOTA)회의<sup>5)</sup>와 작년의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또는 하와이 이전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sup>

### CBO보고서, “지상군 1천명만 남기는 안”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초에 발표된 미국방부의 <4개년 국방개혁검토보고>(QDR)도 미국 본토 방어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해외 미군기지 조정과 재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에 발표된 미의회 예산국(CBO) 연구보고서 <육군의 해외 기지 변화를 위한 대안>에서는 향후 주한 미 지상군 규모에 대하여 ▲ 1천명의 수용부대(reception forces)만 남기는 안, ▲ 1천명의 수용부대를 남기고 4천여 명의 여단전투부대(BCTs)를 순환 배치하는 안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 육군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 ▲ 한국의 모든 미 육군기지를 서울 이남의 두개의 큰 기지로 통합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sup>7)</sup> 이런 점에서 CBO보고서는 향후 미지상군 감축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오래된 계획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의 개편은 최 근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년여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즉,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미국정부가 1990년 4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3단계에 걸친 미군 감축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1990~92년)에서는 한국에서 공군 2,000명과 지상지원부대 5,000명 등 7,000명의 비전투 요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총 1만 5,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단계(1993~95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보아 감군을 단행하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한 뒤에 제2보병사단의 재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3단계(1996년 이후 5년간)에서는 지역안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력을 감축하되,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전환하고, 한국군이 대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 질 경우 억지 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sup>8)</sup>

이 계획은 제1단계가 이행된 이후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2·3단계 계획의 대부분이 중단되었다. 미국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를 통하여 주한미군을 현 수준 동결방침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도 한미양국은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공동연구<sup>9)</sup>등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왔다.

주한 미지상군의 대폭 감축과 해·공군력의 강화 등을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와 주한미군 구조조정,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화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구조의 대대적 변환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sup>10)</sup>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 지휘구조와 관련하여, 사단급 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더욱이 대규모 증원전력 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사단장(2성) 위에 4성 장군과 3성 장군을 중층적으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고 군구조가 ‘군-군단-사단-여단’체제에서 ‘UEy-UEx-UA’체제로 전면 개편되는 조건에서 더 이상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조정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의회 중심의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방부 중심의 점증하는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개편 논의는 여러 정세 등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온 것으로서,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군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에 따라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자료, “‘시설과잉’ 가능성 농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제2항 주4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을 위한 토지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평택기지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을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추가 감축은 2008년까지 2만 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현재의 감축 일정이 완료된 후인 2009년 이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일정대로라면 평택기지 확장이 마무리 된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시작 되는 것이다.

문제는 평택의 K-6(캠프 험프리스)기지에 들어갈 병력의 대부분이 추가감축 대상인 지상군(2사단)병력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막상 기지가 확장된 다음 그 기지에 주둔할 병력이 없거나 잠깐 동안 주둔하고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CBO보고서에서 제시된 대로 1천명의 수용부대만 남게 된다면 기지는 확장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천여 명이 주둔해왔던 기존 기지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K-6기지에는 이미 1천7백여 명의 주한미군이 추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력 수로만 따진다면 1천명의 수용부대 외에 4천여 명의 순환배치부대가 추가로 주둔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K-6기지만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그에 따라 평택기지 확장될 경우 ‘시설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의 합의이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기지 확장이 강행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과 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에 대한 협상과 추진이 마무리된 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평택미군 기지확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얘기라 할 것이다.

기지 확장 후 감축 시작되면 파괴된 마을 되돌릴 수 없어

이에 대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한미양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합의의 이행을 멈출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지 확장이 된 뒤 곧바로 미군이 추가 감축되어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기존 합의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예견되는 불행한 사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기지가 확장되자마자 그곳에 들어갈 병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기지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재정적 낭비와 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동맹 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된다면 한여름이면 질푸르게 출렁이는 벼의 바다,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와 선사시대 이래의 유적들, 그리고 그런 자연이며 문화유산들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은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용산과 미2사단 재배치를 다루는 미러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진행과정에서도 이와 유

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각종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3만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의 감축)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한미양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축문제가 공식화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협상관계자들은 기지 규모를 줄일 테니 두고 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병력이 줄어드는데도 기지를 당초 합의했던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명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협상을 한 책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한편, 미국은 확장된 기지에서 단기간 머물다 추가감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지확장 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한미양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2003년의 상황에서 129억원의 우리 국민 혈세를 들여 용산기지 내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한 장교가 “우리는 단 며칠을 살아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던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는 자주·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협정에도 사업 종료 가능성 열려 있어

LPP개정협정에는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산기지이전협정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협정 상으로도 미군재배치사업의 ‘조정’ 또는 종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양국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평택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추가감축 기정사실화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지 확장 강행을 우선 중단하고 추가감축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 기지 확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1) “미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지속 감축 예상’”, <연합뉴스> 2006. 3. 8
- 2) “팰런 사령관, 주한미군 추가 감축 전망 확인”, <연합뉴스> 2006. 3. 10
- 3) “전시작전권 이양, 주한미군 감축가능”, <내일신문> 2006. 3. 24

4)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 관계자를 협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한미군은 결국 공군과 해군만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주한 미 지상군 추가감축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를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2004년 8월 19일 중앙일보는 2004년 7월에 열린 제10차 미대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은 새로운 형태의 사단급 전투부대로 남고 주일미군이 동북아 미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하는 동북아 미군의 전면 재편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의 주한 미 8군사령부는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내 육군 사령부로 통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 또는 소장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한미양국은 최근 실무자 간에 이 같은 논의를 계속해 왔고, 제11차 FOTA회의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6) 2005년 10월 17일자, 한국일보는 미국이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공식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획’의 회의 의제 중에는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 안보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 12일자, 재팬타임스 인터넷판과 6월 24일자, 워싱턴타임스는 ‘주한미군사령부 하와이 이전, 8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2만5천명으로 감축 및 작전권 한국 이양’ 등을 보도하였다.

또 제37차 SCM을 앞둔 10월 10일, 재팬타임스는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가능성과 함께, “2008년 혹은 그 이후에 육군 4성 장군과 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작전권 반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전 워싱턴포스트의 군사전문기자 리처드 할로란의 특별 기고문이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기자다. 당시 그의 기사가 나간 후 미군측은 주한미군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7) <Options for Changing the Army's Overseas Basing>, CBO, MAY 2004. xvi~xix.

8)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나 :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214~215쪽

9)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Santa Monica: RAND, 1995)

10) 한용섭 편, 위의 책, 218~219쪽 참조

11) 김영일 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예산현안분석 제7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 6, 13~14쪽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조정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의회 중심의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방부 중심의 점증하는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LPP개정협정에는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산기지이전협정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 이란-1949년의 추억과 2006년의 의지

뉴욕, 미술인 최성희

1949년, 이란. 어린 아르데셀은 며칠간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며칠 후 돌아왔다. 까칠했지만 아버지는 열의에 불타 있었다. “우리가 기필코 영국 석유회사(BP: British Petroleum)에 이기고야 말거야.” 아버지는 BP의 착취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 끈질긴 파업을 벌인 44,000 이란 석유 노동자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었다. 1901년 이후 이란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의 80%가 영국 회사들에 의해 식민화되어 있었다. 1909년 BP는 자원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1914년 이후 영국 정부는 BP주식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으로 영국 해군을 키웠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의 착취적 이란 석유 유출은 농촌이 80%였던 이란의 급격한 산업화와 대량 노동자 계급을 낳았고, 이들은 또한 학생, 지식인과 함께 반제 의식고양의 주요한 중추가 돼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영국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비롯한 많은 그룹이 매일매일 시위를 벌였고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어린 아르데셀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빛나고 생생한 모습과 함께 아름답고 눈부신 기억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 정부의 건설, 희망의 미래는 더 큰 제국주의, 미국에 의해 급격히 좌절되었으니 그것이 미 CIA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전복이었다고 자랑하는 1959년 이란 모사택 민주정부의 거꾸러짐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부활한 왕조가 이후 20년간, 19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비밀경찰을 무기로 사람들의 민주화 욕구를 잔인하게 침묵시켰고 정의로운 열기에 불타있었던 20대 대학생 아르데셀은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비밀경찰에 끌려가 3일간 고문을 받아야 했다. 친척이 고위급 공무원이란 사실덕에 그는 피살 직전에 풀려 날 수 있었고 많은 이란의 젊은이들처럼 어쩔 수 없이 반 망명을 해야 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2006년 2월 14일, 뉴욕 맨하탄의 군대철수위원회(Troops Out Now)의 넓지 않은 사무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란에 대한 부시정부의 압력과 전쟁분위기 고조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람들로 뻘뻘이 채워졌다. 국제행동위원회(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공동창시자인 사라 플랜더의 사회로 다니엘 스트럼의 이란 다큐멘터리 필름, 미국-이란 친우회와 이란전쟁반대위원회(<http://www.stopwaronIran.org> 각국 활동 단체들, 개인의 서명 요청!)의 창시자인 아르데셀 옴마니와 엘리 옴마니의 강연이 있었다. 다니엘 스트럼의 필름이 시와 예술이 넘치는 이란의 문화, 자주적인 에너지로 넘치는 이란 사람들의 감동적인 삶을 보여 주었고 서구인이지만 오랜 세월 이란에서 산 경험이 있는 엘리 옴마니가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이슬람관과 이란 여성관의 허구를 논의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였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란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현재 이란 대학생의 60%가 여성이고 얼마 전 열린 국제 과학 경시에서 이란 여성과학자가 승자였다 한다.

한편 아르데셀 옴마니는 열정적인 강연으로 목이 메기도 했다. 이란의 합법적으로 정당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 미국에 의해 어떻게 미국의 속내-석유독점을 숨기기 위한 빌미로 작용하는 지, 현재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서 어떻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논의 등을 비롯, 전쟁의 스텝을 밟아 가고 있는 지, 미 부통령 체니의 말을 인용, 어떻게 중동의 석유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인 지, 이란 국민들은 왜 미국의 위선에 분노하고 평화와 자주를 원하는 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뜨겁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문했다.

그리고 한 돌연 사건. 그는 사무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말하지 않았고 현 이란 정부가 한 버스 노조위원장을 구금한 것에 구체적 상황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역시 현 이란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는 미 정부의 선전에 들어 맞추듯) 그로 인해 분위기는 순간 험악해졌고 그는 결국 활동가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퇴출되었다. 나중에 그가 현재 미국 CIA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자칭 비정부 조직(사실, 미 국회로부터 엄청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NED(National Endowment Democracy)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국제행동위원회(International Action Center)에 따르면 NED는 레이건 정권 때 탄생, 현재까지 미국에 밀보인 독립국가들,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주 상대로 내부 교란과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은밀히 투입되어 활동한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을 비롯, 대상 국가의 좌익계와 노동계에도 투입, 분열을 도모한다. 미국의 석유 이해가 걸린 지역-발칸, 중앙 아시아, 중동이 어찌 빠질쏜가? 북한 역시 한 대상이다.

한편, 캐나다의 미셸 초도프스키, 미국의 노암 촘스키,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지 허쉬 교수 등 많은 지식인들이 작년에 나온 미 국방부의 핵 독트린 등 제반 문헌에 의거, 반전 진영에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해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험가능성을 경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해왔다.

이름이 ‘저강도’지, 실제로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당시 트루만정부는 새 무기의 효용을 ‘실험’하기 원했다.)보다 몇 십 배의 파괴력에 이르고 지구의 멸망을 촉진하는 미국의 핵무기 실상, 그리고 미 국방부의 최고 우선권이 된 심리·정보전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창조적 의지를 시험하는 숙제가 아닐 수 없다.

2월 14일, 아르데셀 옴마니를 비롯, 군대철수위원회 사무실에 모인 이란에 대한 전쟁 반대 강연자들

위 \_ 3월 18일, 뉴욕의 미국 이라크 침략 3주기 집회에서 한 이란 이민소년

아래 \_ 3월 22일, 워싱턴 한 카페 앞에서 북의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서울 기차’에 항의하는 워싱턴 지부 국제행동위원회

## 작가의 또 다른 시도-“길라네”를 보고...

영화는 꿈이고 환상이지만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된다. 특히 자본이란 틀에 의해 조각되고 짜여진, 그래서 예쁘게 포장되는 영화만 봐오다가 가끔 영화제나 예술영화 상영관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은 영화를 만날 때면 신선해서 좋다.

제8회 여성영화제를 통해 만난 첫 영화는 ‘길라네’란 영화다. ‘길라네’는 이란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 락산 바니 에테마트(Rakhshan Bani-Etemad)과 모흐센 압둘바함(Mohsen Abdolvahab)의 공동 연출작으로 이란, 이라크 간의 전쟁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 ‘길라네’는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아들 ‘이스마엘’을 전쟁터로 보내고 탈영한 사위를 찾아 임신한 딸과 테헤란으로 찾아 여정을 떠나는, 영화제목과 동명의 여인인 ‘길라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아들 ‘이스마엘’이 입대하며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긴 남편을 찾아 테헤란으로 떠나겠다는 임신한 딸 ‘메이골’을 혼자 보낼 수 없어 ‘길라네’는 짐을 챙겨 따라 나선다. 어렵사리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딸의 시택엔 가구며 가족이 남아있질 않고 때마침 시작된 미사일 폭격은 두 모녀를 더욱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영화는 15년 뒤인 2003년 선달그믐, 세월이 안겨준 고통의 시간만큼 늙어버린 듯한 ‘길라네’가 발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진정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스마엘’은 하반신 불구가 되어 있었고 천식기 있는 기침소리로 ‘이스마엘’이 전쟁터에서 다쳐 돌아와 15년을 누워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굵어버린 ‘길라네’의 등에서 그 지나간 시간 동안 조그마한 가게 하나로 아들의 병 수발을 하며 살아왔을 ‘길라네’의 삶을 짐작케 한다. ‘이스마엘’은 하루도 쉴 새 없이 가게일과 집안일, 그리고 자신의 병 수발을 해대는 어머니 ‘길라네’를 바라보며 한숨만 쉴 뿐이다. ‘길라네’ 역시 늙고 지쳐 있지만 상이군인 병원에 아들을 보내 또 다시 이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다만 매년 찾아오던 전쟁미망인인 ‘아테페’가 시집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만 바랄 뿐이다. 영화는 그런 두 모자의 지루한 일상을 더듬는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의사가 왕진 오고, 진통제를 충분히 챙겨주면서 어머니 ‘길라네’를 위해서라도 ‘이스마엘’이 상이군인 병원에 입원할 것을 충고하고 가는 의사 뒤에서 ‘아테페’를 한 없이 기다리는 ‘길라네’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러닝타임 85분의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 황당한 결말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줄거리가, 완벽한 기승전결의 구조와 해피엔딩으로 일관하는 할리우드식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들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같은 이란의 거장 ‘압바스키에로스타미’의 ‘착한’영화 3부작이 생각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나 ‘그리고 삶은 지속된다’도 그렇고 ‘올리브나무 사이로’도 그렇지만 줄거리로만 봐선 단순하기 짝이 없다. 혹자들은 그 이유를 이란의 영화검열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나 성적인 노출의 정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 작가들의 생존 방식으로 상징과 행간을 통해 얘기하려는 습성이 생겼다고도 한다.

물론 그런 자율적 통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작가의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 ‘착한’영화 3부작에서도 단순한 줄거리 사이사이에 압바스키에로스타미는,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황폐해진 이란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도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미국의 화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그리고 결국 이란으로 옮겨가는 2005년이다.



조그마한 ‘길라네’의 가게에 미국 담배 ‘윈스톤’을 사러온 철부지 젊은이들은 담뱃값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길길댄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으니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고 미국이 이라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논평(?)을 던진다. 또한 열악한 통신 시설 때문에 ‘길라네’가 의사에게 연락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차를 몰고 온 외지인은 손전화로 누군가에게 미사일 폭격으로 땅값이 더 싸지면 사자고 한다. 그 미사일은 이라크의 미사일은 아닐 것이다. 그때 ‘이스마엘’이 보고 있던 뉴스엔 이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었고 후세인 체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이기 때문이다. 이걸 85분이란 짧은 러닝타임에 막연히 양념으로 넣은 얘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남부의 미망인 ‘아테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스마엘’이 외팔이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상이군인 병원에 입원하는지 안 하는지 결말도 얘기하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 지은 마당에 말이다. 작가의 의도된 시도의 흔적이 보인다. 작가는 혹, ‘악의 축’이니 ‘불량국가’니 하며 전 세계 언론 권력을 쥐고 미사일을 퍼부어대는 강대국 미국에 맞서 이라크 다음 차례인 이란 민중들의 황폐한 삶을,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 줄 것을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영화 곳곳에 장치하지 않았나 하는 상상을 해본다.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진다. 스크린 쿼터가 줄어들기 전에 대추리, 도두리에 관한 영화를 만 들어서 극장에 걸어야 할텐데... 너무 늦었나...

글 | 김균열

홍근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3월 21일 오전 11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사단법인 통일맞이' 박용길 상임고문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근수 상임대표에게 <제 8 회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시상하였다. 변형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박용길 고문이 '민족화해'를 대표한다면 홍근수 대표는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두 분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이 이 ‘민족화해’의 흐름과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평통사를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매항리 투쟁부터 소파개정, 두 여중생 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등 반미 자주의 길이 통일로 가는 첩경이라 생각하며 더욱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상금 전액을 평통사에 회사하였다.

#### 심사경과보고

##### 제8회 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 안병욱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선, 이번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8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3차례나 모임을 가진 뒤 결론을 낼 정도로 깊이 논의하고, 또 논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번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처럼 심사위원들이 3차례나 모임을 가진 예는 없었습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들은 강태호 한겨레신문 통일팀장,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은희 덕성여대총장(전여성부장관),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등입니다.

올해 통일문화상 심사는 한겨레신문에 지난 1월 6일 추천 공고가 나가면서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많은 분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많은 후보들 중에서 박용길 고문님과 홍근수 대표님을 최종후보로 뽑는 데까지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선뜻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수상자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활동을 되새겨보면 볼수록 두 분 모두, 지금 이 시기의 ‘평화통일운동’에서 절실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박 고문님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남북이 이 만큼이나 서로 이해하고 왕래하는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형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박 고문께서는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화해의 흐름을 잇고, 그 흐름이 막혔을 때는 앞장서서 그것을 뚫어 오신 분입니다. 남북이 모두 존경하는, 박 고문 같은 분이 없으셨다면, 남북은 막힌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의 벽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심사위원들은 홍 대표님의 활동도 이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과, 홍 대표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도 쉽게 나서기를 꺼리는, 또 정말 구속과 투옥 등 여러 위험이 상존하는 그 영역을 한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문제와 한반도 평화군축 문제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이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에게 먼저 상을 드릴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무게 탓에 결정을 못하고 3차례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심사위원회는 두 분 가운데 누군가를 먼저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레통일문화상이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통일문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 기운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통일운동을 보다 넓히는 것이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이 상을 만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라 지금 우리 민간 통일운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바로 박 고문님으로 대표되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과, 홍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의 흐름이 서로 만나 더 큰 힘을 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민간 평화·통일운동은 엄혹한 시절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이끌어왔습니다. 1989년 평양을 방문해 북한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신 고 문익환 목사님은 그 한 정점이었습니다. 이번에 통일문화상을 함께 받으시는 박용길 고문님과 홍근수 대표님, 두 분은 모두 문 목사님의 뜻을 잇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공동수상이 두 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다시 문 목사님의 공동성명처럼 우리들의 평화·통일운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북평통사

전북평통사는 군산지역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산미군기지와의 관련성 및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4월 20일(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평통사의 오혜란(미군문제팀장)님을 모시고 ‘전략적유연성과 군사미군기지의 관련성, 그리고 문제점’이란 설명회를 전북평통사 주관,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외 9개단체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일 공군은 ‘직도 자동채점 장치 설치를 위한 군산지역 시민단체들 및 지역 언론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전북평통사와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직도 폭격장폐쇄, 매항리 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매항리 직도이전을 위한 자동채점 장비설치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4월 23일(일) 오후 7시 전북익산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 7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대전충남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는 지난 4월 13일 4기 2차 운영위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운영위에서는 지난 3월 대추리로 평택지킴이 활동을 다녀온데 이어 전북평통사와 함께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평택에서 1,500평 농사를 짓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4월 22일 법씨뿌리기 농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홍성지역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두 차례 간담회가 있었으며 5월 5일 ‘무기장난감화초로 바꾸주기’를 행사를 비롯하여 정기적 회원모임, 평화학교 등을 열기로 하였다.

#### ●광주전남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는 지난 3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5월 즈음 총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공군부대 정문에서 열리는 ‘패트리엇 미사일기지 폐쇄, 주둔미군철거 68차, 70차 금요집회’에 배종열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4월 6일에는 목포, 무안지역 회원모임이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교양을 중심으로 한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5월 4일 저녁 7시 30분 5월 모임을 열기로 하였다. 또한 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4월 22일 평택 1,500평 농사를 위해 법씨뿌리기 농활을 가기로 하였다.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송헌승, 송봉섭 님이 회원으로, 김희용 님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 ●서울평통사

4월 19일(수)에는 14차 테마사랑방을 진행하였다. 주제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고, 강연은 허영구 평통사 지도위원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였다.

현재 평택 대추리에는 운영일 회원과 이미희 회원이 평택 지킴이로 상주하고 있다. 평택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는 두 회원에게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

4월 22일(토)에는 여성분회 주관으로 ‘평택으로 가는 평화 나들이’를 진행하였다. 무기장난감을 학용품이나 책 같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평화나눔터 행사를 이번에 특별히 평택기행으로 바꾸어 진행한 것.

또한 23일(일)에는 농사일로 바쁜 평택에서 하루 농활을 하였다.

#### ●안동평통사

안동지역에서는 오는 4월 26일(수)부터 4월 29일(토)까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교조 안동중등지회와 공동주최로 '제1회 안동 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인권영화제는 대도시 중심으로 상영되어온 바,중소도시 지역인 안동은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가 전무했었기에 지역 대중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알고 다양한 인권 투쟁의 현장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인 인권을 옹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개최한다.

#### ●인천평통사

대북 선제공격 전쟁연습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독수리연습(EF)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인천지역 단체들과 함께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다.

4월 1일~2일에는 천지분회 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평택 도두리 마을농활을 다녀왔다. 아이들과 함께 지난 5일 국방부가 파괴한 황새울 농토도 돌아보고, 들에서 쭉도 뜯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작은 일이라도 하자며 결의를 모았다.

4월 11일 평택에서 열린 79차 반미연대집회에 노동분회 회원들이 월차를 내고 참여하였다.

#### ●부천평통사

4월 15일~16일 이틀 동안 평택으로 농활을 다녀왔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전 밖에 작업을 안했지만 그래도 무척 힘이 들었다는...

4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엔 회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양을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부천평통사의 내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

5월 말에는 '평화마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역동지, 친구, 동료들과 함께 평택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평통사에서 이제 막 상근을 시작한 새내기 상근 일꾼 박숙경 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